시련과 자비로 삶을 비추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⑰ 벼락의 양면성을 보여주다, 뇌공신(雷公神)

현재 전국에서 호우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다. 경기권의 경우 비뿐만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고 있으니, '하늘이 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로부터 비와 천둥이 휘몰아치면 하늘에 있는 신이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었다. 적당한 비는 농경사회에서 큰 축복이지만, 지나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흔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를 만큼 큰 죄를 지었기에 천둥과 벼락이라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불교문화에는 앞서 말한 천둥번개와 관련된 신이 존재한다. 바로 '뇌공신(雷公神)'이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북채를 든 뇌공신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구원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 동양신화 속 뇌공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뇌공신은 고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에는 '뇌신(雷神)'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오나라 서쪽 '뇌택(雷澤)'이라는 호수에 살고 있으며 용의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려 천둥소리를 낸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같은 책 '대황동경(大荒東經)' 부분에는 '황제(黃帝)'가 뇌신의 뼈로 북채를 만들어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500리 밖까지 들려 천하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이후, 뇌공신 이미지는 중국 한대(漢代)의 사상가 왕충(王充)의 〈논형(論衡)〉 기록부터 정립된다. 〈논형〉에는 화공(畵工)이 우레의 모습을 그리는데,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연고(連鼓)'의 형태와 같고 이를 '뇌공(雷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우레란 번개를 뜻하고 천고는 하늘의 북, 즉 천둥소리를 의미하니 이러한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뇌공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뇌공신의 모습은 한대 화상석부터 남북조시대 벽화고분, 불교 석굴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뇌공신

앞서 살펴본 뇌공신이 석굴사원 벽화로 표현된 것은 불교문화에 뇌공신이 스며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불교 경전에도 뇌공신으로 추정되는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는 "큰 구름을 일으키고 벼락을 치며 우박과 돌을 비로 내려 보리수 위에 뿌렸다"라며 뇌공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이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왕 '파순(波旬)'의 군대가 이를 방해하려는 장면으로, 뇌공신이 파순과 함께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돈황 제249굴 벽화의 뇌공신(중국 위진남북조 6세기).



팔상도 수하항마상 중 석가모니와 뇌공신 장면(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재앙과 구원의 두 얼굴, 천둥 번개의 신
남북조 벽화고분·석굴사원 벽화에 표현
부처님 위신력에 악신서 선신으로 변모
유교문화선 죄 사하는 자비의 심판자로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은 미술로도 표현된다. 대표적인 작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압축한 '팔상도(八相圖)'다. 팔상도의 여덟 장면 가운데 위 이야기가 묘사된 부분은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다. 보리수(菩提樹) 밑에서 정각(正覺)의 경지에 이른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를 방해하는 파순의 대결은 팔상도 여덟 장면 가운데 가장 긴장되면서 극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뇌공신은 상단에 위치하는데 부하들을 부려 돌덩이와 벼락을 뿌리고 있다.

불교미술은 경전과 교리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는 뇌공신은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뇌공신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 이는 양산 통도사(通度寺)를 비롯한 18세기에 조성된 불화부터 보이는데 위에서 살펴본 뇌공신과 부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파순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뇌공신의 행위는 팔상도가 시작된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악역을 자처하던 뇌공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돕는 '선신(善神)'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상황을 대변한다. 당시 불화와 불상 등 불교미술 조성을 담당한 계층은 스님들이었다. 이와 같은 승려 장인들은 그 누구보다 깊은 불심을 지니고 있었다. 기존 작품보다 부처님의 힘과 자비심을 강조하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고, 이를 악역인 뇌공신의 모습을 바꾸는 장면으로 해결한 것이다. 뇌공신이 선신이 된 것은 불심에 감화(感化)를 받은 것이고,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능력, 즉 '위신력(威神力)'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서면 선하게 변하는 위대한 힘 말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오이면화(吳二免禍)' 장면(조선 15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심판의 존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천둥과 벼락이 큰 재난이 일어날 징조 혹은 왕이 정치를 잘못해 하늘이 꾸짖는 소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크고 쩌렁쩌렁한 천둥소리가 곧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징조이자, 하늘에서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무속신앙에서 뇌공신은 '뇌공살(雷公殺)'이라고 하여 벼락 맞아 죽을 팔자를 주관하는 '벼락장군'으로 등장한다.

팔상도의 뇌공신이 깊은 불심을 보여줬다면 조선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유교문화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자비로운 심판자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효(孝)'와 관련된 설화 속 뇌공신이다. 이는 세종대왕 시기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행실도(行實圖)〉에서 볼 수 있다. 〈행실도〉는 당시 윤리 교육과 백성 교화를 위해 유교의 이상적 덕목을 실천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은 보급서다.

〈행실도〉 효자 목차 가운데 뇌공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오이면화(吳二免禍)'라는 이야기로 중국 송(宋)나라에 살던 '오이(吳二)'라는 남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오이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신령이 나와 "너는 내일 정오에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오이가 "저는 봉양해야 할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디 구해 주소서"라고 빌었더니, 신령이 "하늘에게 명령을 받았으면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오이는 늙은 어머니 걱정에 끊임없이 흐느꼈다.

다음 날, 오이는 어머니가 걱정돼 잠시 누이 집으로 모시려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도통 말을 듣지 않으셨고 속은 타들어 갈 것만 같았다. 이윽고 정오가 되니 먹구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오이는 어머니가 놀랄까 봐 걱정돼 얼른 문을 닫고, 들판에 뛰어나가 자신이 맞을 벼락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까만 먹구름이 점점 옅어지더니 이윽고 푸른 하늘이 확연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오이는 당황했지만, 화를 면했다고 생각하여 급히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이 든 오이의 꿈에 신령이 다시 나타났다. 사실 오이는 신령의 말이 맞지 않아 의심하고 있었고, 신령께서 이를 알고 있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다. 신령께서 오이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길 "너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지은 죄를 용서했으니, 마땅히 공경하여 섬기거라"라고 하시고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이후 오이는 하늘에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한다.

마치며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다고는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사람들은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뇌공신을 시련의 존재라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 뇌공신은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면모를 보여줬다. 불교미술의 팔상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스며든 뇌공신을 보여줬고, 유교 미술의 〈행실도〉에서는 효의 덕목을 지킨 자를 용서함으로써 자비로운 뇌공신을 보여줬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비가 온 뒤 갠 맑은 하늘처럼 우리네 인생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때로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는 뇌공신의 다양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 철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